



### 오늘의 성가

입당	77	주 천주의 권능과	성체	499 163	만찬의 신비 생명의 성체여
봉헌	513 510	면병과 포도주 주님께 올리는 기도	파견	201	은총의 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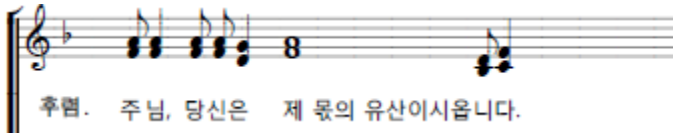
**말씀의 초대** ㉮ 주님께서서는 엘리야에게,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우라고 하신다(제 1 독서). 바오로 사도는, 자유롭게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육을 위하는 구실로 삼지 말라고 한다(제 2 독서). 예수님께서서는,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신다(복음).

#### 제 1 독서

<엘리사는 일어나 엘리야를 따라나섰다.>  
 ㉮ 열왕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19,16 ~.19-21  
 그 무렵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아벨 므홀라 출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네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엘리야는 그곳을 떠나 길을 가다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다. 엘리사는 열두 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는데, 열두 번째 겨릿소는 그 자신이 부리고 있었다.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 곁을 지나가면서 자기 겹옷을 그에게 걸쳐 주었다. 그러자 엘리사는 소를 그냥 두고 엘리야에게 달려와 이렇게 말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한 뒤에 선생님을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였다. “다녀오너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였다고 그러느냐?”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 돌아가서 겨릿소를 잡아 제물로 바치고, 쟁기를 부수어 그것으로 고기를 구운 다음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였다. 그런 다음 일어나 엘리야를 따라 나서서 그의 시중을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화답송

시편 16(15),1-2 ㄱ과 5.7-8.9-10.11(◎ 5 ㄱ 참조)



- ◎ 주님, 당신은 제 몫의 유산이시옵니다.
- 하느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주님께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주님.” 주님은 제 몫의 유산, 저의 잔. 당신이 제 운명의 제비를 쥐고 계시나이다. ◎
- 저를 타이르시는 주님 찬미하오니, 한밤에도 제 양심이 저를 깨어나이다. 언제나 제가 주님을 모시어, 당신이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
-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 뛰노니, 제 육신도 편안히 쉬리이다. 당신은 제 영혼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구령을 보지 않게 하시나이다. ◎
- 당신이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오며 기쁨에 넘치고,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하리이다. ◎

#### 제 2 독서 <여러분은 자유롭게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 사도 바오로의 갈라티아서 말씀입니다. 5,1.13-18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메지 마십시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롭게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 자유를 육을 위하는 구실로 삼지 마십시오.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사실 모든 율법은 한 계명으로 요약됩니다. 곧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하신 계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한다면, 서로가 파멸할터이니 조심하십시오. 내 말은 이렇습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의 욕망을 채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이 욕망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께서 바라시는 것은 육을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복음 환호송

1 사무 3,9; 요한 6,68

- ◎ 알렐루야.
- 주님, 말씀하소서, 당신 종이 듣고 있나이다.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 알렐루야

#### 복음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9,51-62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차자,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 그래서 당신에 앞서 심부름꾼들을 보내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려고 길을 떠나 사마리아인들의 한 마을로 들어갔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야고보와 요한 제자가 그것을 보고,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 내려 저들을 불살라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서는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그들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예수님께서서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나 그는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알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또 다른 사람이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이르셨다.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미사지향**

연미사	생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명자(세실리아)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li> <li>▪ 한정숙(레지나)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li> <li>▪ 성태영(바오로), 성용순(미카엘라)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li> <li>▪ 김명자(헬레나)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li> <li>▪ 김교식(야고보)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li> <li>▪ 김응호(알레로)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li> <li>▪ 김준호(베드로)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li> <li>▪ 이동현(요셉)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li> <li>▪ 이영주님의 영혼을 위하여 - 이은하</li> <li>▪ 광창진(스테파노)의 영혼을 위하여 - 광 루시아</li> <li>▪ 손정호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영철(프란치스코) 형제님의 빠른 쾌유를 빌며 - 올드브릿지 구역 / 제대회</li> <li>▪ 오흥순(카타리나)의 빠른 건강 회복을 위하여 - 오.사.모 / 흥원기(에우세비오) 가족</li> <li>    맹완식(어거스틴), 최태영(스테파노), 손영학(빈첸시오), 임광선(요한)</li> <li>▪ 김수산나 자매님의 빠른 쾌유를 빌며 - 서 대건안드레아</li> <li>▪ 대자, 대녀를 위하여 - 최 율리아나</li> </ul>

 **지난 주 우리의 정성**

KCC 주일 헌금	\$ 1,576	OLM 주일 헌금	\$ 2,849	미사 참여자 수	207 명
KCC 이차 헌금	\$ 1,591	OLM 이차 헌금	\$ 1,328		
교무금 (\$1,560)	전광수(5-6) 이용문(6)	황덕삼(5-6) 김진(6-7)	이종권(4-6) 김현걸(5-6)	이숙희(1-5) 이재구(1-6)	이계영(5-6) 김금자(6)
• 교무금, 개인 감사헌금, 주일헌금, 대축일 감사헌금, 2 차헌금 - Payable to <b>Our Lady of Mercy</b> 또는 <b>OLM</b> (월, 세대주 이름 및 본명을 꼭 기입해 주십시오)					

**◆ 공동체 소식**

**◆ 야외미사**

- 일시: 7월 14일(주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Donaldson Park Grove 2
- 미사 후 체육행사가 있습니다.

**◆ 매일미사 책 신청**

- 1년 구독 비용: \$48
- 구독 기간: 2019년 9월~ 2020년 8월
- 개편되는 주보에는 매일미사 독서와 복음이 수록되지 않습니다.
- 문의: 백영숙 헬레나 (732-841-9982)

**◆ 매일미사 책 배부**

- 7월 매일미사 책을 신청하신 분들께서는 백헬렌 자매님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사무실 휴무**

- 7/1(월) - 7/9(화)까지 사무실 휴무입니다.
- 미사 지향 신청 및 교무금은 총무분과장님께 전달바랍니다.

**◆ 구역장 변경 안내**

- 메타천 구역 황분숙(비비안나)자매님, 먼로 구역 이케이트(이사벨라) 자매님이 새 구역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 신자등록서 배부**

- 아직 신자등록서를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바랍니다.

**◆ 후보 광고주 모집**

- 칼리주 후보로 새롭고 알차게 꾸미려고 합니다. 비용 충당을 위해 광고도 다시 부활하려하니 광고주 모집에 교우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광고는 한 란에 격주로 년 200 불입니다.
- 친교실 게시판에 공시된 샘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St. Joseph Church Vacation Bible Study**

- 일시: 7월 15일 - 19일, 오전 9시-12시
- 참가대상: 4세-10세 아동(Pre-K to 5<sup>th</sup> grade)
- 참가비: \$35/1명, \$65/2명, \$90/3명 이상
- 접수마감: 7월 10일(수)까지
- 문의: St. Joseph Religious Education Office 732-356-0645

**◆ 2019 북미주 성령대회 (24차 미동북부)**

- 일시: 7월 20일(토) - 21일(일)
- 장소: Felician University
- 참가비: \$40 (토-점심, 저녁 / 주일-점심 포함)
- 신청 및 문의: 정 요세피나 (908-672-1515)

**◆ H마트 상품권**

- 성모회에서 H마트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환우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영철 프란치스코, 장인석 미카엘, 최규학 프란치스코, 하건철 안토니오, 이정우 바오로, 오옥순 수산나, 정영옥 수산나, 최혜경 데레사, 최경삼 안나, 김경희 수산나, 오홍순 카타리나

◆ 소공동체 소식

- ◆ 구역장 월례회의
  - 일시: 6월 30일(주일) 미사 후
  - 장소: 친교실 회의실

- ◆ 사목회의
  - 일시: 7월 7일(주일) 미사 후
  - 장소: 친교실 회의실

- ◆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7월 15일(월) 저녁 8시
  - 장소: 친교실 회의실

- ◆ 구역모임
  - 에디슨
    - 일시: 7월 7일(주일) 미사 후
    - 장소: 친교실

◆ 예수 성심 성월 기도

예수 성심께 천하만민을 바치는 기도

- 지극히 어지신 구세주 예수님, 주님 앞에 꿇어 경배하오니 저희를 굽어살피소서.
- 저희는 이미 주님의 백성이오니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하나 되고자 오늘 저희를 주님의 성심께 봉헌하나이다.
- 주님을 일찍이 알아 모시지 못한 사람도 많고 주님을 알고도 주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난 사람도 많사오니
- 지극히 인자하신 예수님, 이런 사람들도 다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성심께 이끌어 들이소서.
- 주님께서서는 목자이시니 주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을 보살피시고 이미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굽어 죽는 일이 없게 하소서.
- 웅졸한 고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나 불목하여 갈린 사람들도 부르시어 저희가 모두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한 우리에서 한 목자 밑에 살게 하소서.
- 주님, 거룩한 교회를 평화의 깃발로 세우시고 모든 나라에 참된 평화를 주시어 온 세상 어디서나 입을 모아 저희를 구원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히 찬미와 영광과 흠숭을 드리게 하소서. ◎ 아멘.
- 예수 성심 ●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

복음 묵상 나눔 질문

◎ 복음 나눔

내 마음에 다가온 성경말씀 속에 드러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습니다. 복음 안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지, 어떤 모습을 보여 주시는지를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간단하게 나누입니다

✎ 루카 9:51-62 (연중 제 13 주일)

“예수님께서서는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루카 9,56)

1.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인들의 냉대도 받아들이십니다.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신비는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곧은길을 마다하고 기꺼이 돌아가는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마음의 눈으로 지켜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지 나누어 봅시다.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알리라.” (루카 9,60)

2. 예수님의 부르심은 세상의 인연을 넘어서는 초대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인의 전부이자 제 1 사명입니다. 나에게 하느님의 나라는 무엇인가요? 다른 이들에게 하느님의 나라를 전하는 기쁜 만남을 가졌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루카 9,62)

3.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우리 안에 남아 있는 미련과 후회입니다. ‘예수님을 따름’은 단호한 선택을 요구합니다. 어려움 중에 주님을 선택하면서 믿음이 깊어졌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고 나누어 봅시다.

✎ 루카 10:1-12:17-20 (연중 제 14 주일)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 주십시오 청하여라.” (루카 10,2)

1. 예수님께서서 72 명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견하시며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일꾼은 누구인가요? 주님께 일꾼을 보내 달라고 청해 본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가거라...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루카 10,3-4)

2.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필요 없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마귀들까지 저희에게 복종합니다...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루카 10,17,20)

3. 주님의 이름이 나에게 기쁨이 되었던 순간이 있나요? 나의 세례명이 위로와 기쁨을 가져왔던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